

지역 소식통



군산적십자평생대학, 1학기 개학식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이 2017년 1학기 개학식이 22일 한원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학식에는 한창범 이사장 이시태 부이사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최용희 학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고경숙 부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평생대학 학생들이 참석했다.

개학식에서는 평생대학 학생회장 및 임원들의 공로상 시상과 함께, 2017 인 도주의 활동을 위한 특별회비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됐다.

특히 한원컨벤션(대표 김금옥)은 개학식에 참석한 평생대학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범죄취약지역 합동순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최근 대국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경찰과 함께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최근 대구, 여수 등 전통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로 인해 시민생활의 위축과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관내 화재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순찰노선을 선정하여 순찰 활동을 펼쳤다.

중앙지구대 순찰팀과 시민경찰은 관내 전통시장 중 화재에 취약한 서동시장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 내 통로·점포 막 등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관내 우범지역 위주로 가시적 순찰도 병행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서부보훈청, 6.25참전유공자 정기총회·안보결의대회 개최

전북서부보훈청(지청장 이우실)은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6.25참전유공자 공자 보안군지회 정기 총회 및 안보결의 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종규 부안군수, 오세웅 부안군회의의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백수 지회장이 이임하고 김준석 지회장이 취임하는 이·취임식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결집할 것을 결의하는 안보결의 대회를 거행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조선소 존치 방안 적극 검토해야”

문동신 군산시장, 국회 방문 중앙 정치권 지원·협조 요청

문동신 군산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한 군산조선소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앙 정치권에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방문을 통해 문 시장은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정치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중앙에 전달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존치는 차기 정부의 전북지역 핵심 현안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거제·창원지역 SI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지역과 급효과를 고려해 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중단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민의 소외감을 정치권이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시장은 군산조선소가 완전 폐쇄될 경우 현대중공업 투자비 및 지역 조선업 생태계 구축비용 등 2조원의 비용이 무용지물 되고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기업 R&D 및 인력양성 등의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군산조선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군산연결도로 건설공사 대절토구간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선녀봉 복원과, 군산세무서 청사 신축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사업비 건의 등 국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동신 시장은 “현재 전북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중심으로 제조업 불황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 선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발주되는 물량이 군산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지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게 조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협력사, 도민, 군산시민 등 약 1만 5000명이 집결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결의대회가 지난 2월 14일 열렸으며, 1월 25일부터는 서울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는 등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려운 환경 처해 있는 민원인에게 감동 군산시청 수도과 직원들 미담 ‘훈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민원인에게 감동 행정을 펼친 군산시 공무원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개정면 와룡이택길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과 누수여부에 대해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수도과 유수유제 고계 직원들은 수유가 내부 지하에 매설된 수도배관에서 누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가정은 노년층의 어르신들만 지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체적으로는 수도배관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도과 직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을 두고 누수확인 점검만으로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3시간에 걸쳐 지하에 매설된 수도배관 누수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감

동 행정을 펼쳤다.

해당 가정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는 “본인들 일로는 누수 확인만 해주셔도 되는 일인데 이 집에 마땅히 일할 장정 하나 없는 딱한 사정을 듣고 추운 날씨에도 오셔서 고쳐주셔서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높은 수도세 때문에 걱정하던 할아버지께서 시청 직원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무척 고맙습니다”는 말을 군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남겼다.

군산시 수도과 김종필 주무관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선형사례로 알리는 것은 부끄럽다”며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군산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AI 청정지역 사수 ‘총력전’

원거리용 광역방제기·시방역차량 투입 집중 방역소독 실시

군산시가 AI 청정지역 사수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가창오리 등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는 금강철새도래지 내 나포심자물 지역과 주변도로에 원거리용 광역방제기 및 시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엔 동원된 광역방제기는 소독방역 취약지인 철새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어 한층 더 강력한 현장 중심의 조동 대응체계를 수립하게 됐다.

또한 서수면에 거점 소독시설과 금강철새도래지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든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및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집중소독 및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며

일일 예찰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날씨가 완전히 풀리는 다음 달까지는 철새가 국내에 머물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소독과 예찰로·구제역·AI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봄맞이 가로환경 정비활동

군산시가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봄맞이 가로환경 정비활동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시내 중심 상가 및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조총동 양안로에 위치한 가로변의 느티나무 외 2종 279본과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가로변의 버즘나무 외 2종 403본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여 원의 사업비

를 투입 이달 말부터 3월말까지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가로수 가로화단 및 녹지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벼 육묘용 상토·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

익산시는 이달부터 3월 초까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과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익산시 및 타시·군에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에 지원 단가는 10만원/ha이다.

올해 사업량은 1만ha로 익산시 농지비 전체 재배면적의 60%에 해당하며, 상토 배정은 농업인들의 벼 경작면적에 비례하여 배정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비가림 벼 육묘장(165㎡/동) 신청대상은 벼 재배면적 2ha이상 10ha미만의 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총 사업량 30동에 사업비 1억 8천만원(8백만원/동)을 투입한다.

사업 신청은 ‘비가림 벼 육묘장’은 3월3일 벼 육묘용 상토는 3월10일 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노동력 부족으로 고심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여성청소년 위한 내일박스 전달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정영철)는 22일 익산시 동산동 소재 ‘해뜨는 우리집(그림홈)’에서 여성위생용품이 포함된 내일박스(Rai-Box)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본부장 소동하)에 전달했다.

내일박스(Rai-Box)는 코레일에서 여성청소년의 내일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40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과 비디워시를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여성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및 부녀 가정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번엔 방한용 그림홈 ‘해뜨는 집’

은 가정빈곤, 방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관리모와 함께 일반 가정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주로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해 있고 정 부지원금이 적어 타 시설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정영철 전북본부장은 “북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동센터, 청소년 쉼터, 그림홈에 내일박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with text: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Includes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 and an image of a child holding a kite string.